

미세먼지 절감 나무심기 추진

임실군, 9억원 투입 편백·백합나무 등 30만그루 심기로

임실군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봄철 입목 수확지와 재선충병발제지, 산불피해지 등 155ha의 입목에 9억원의 예산을 들여 30만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식재한다. 식재하는 나무는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상수리, 낙엽송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품종들이다.



임실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조림사업은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의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향상시키고, 우량대경재 목재 생산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완료된 입목에 유실수, 특·약용수 등 식재를 지원하는 특용수 조림사업을 시행, 산주들의 입업소득 향상에도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림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기질을 만들어가고, 목재생산도 동시에 추진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산림분야 정책방향을 '산림기반 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으로 정해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과 숲 가꾸기,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소득증대, 아름다운 녹색경관 및 경관조성지 유지관리 등 지난 해에 이어 양질의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를 최우선 기치로 내

걸어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나서는 한편 산지소득 창출과 산림경영기반 구축 사업을 탄력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산림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임실군수, 국가공모사업 선정대응 총력

심민 임실군수가 올해 공모사업 선정대응에 발 벗고 나서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심 군수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대응을 위해 본격적인 중앙부처 활동에 들어갔다.

18일 심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현재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 대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먼저 농식품부 김중훈 차관보를 방

문하여 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주요사업들을 연계한 통합적 농촌발전 모델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신평면과 지사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갈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 개발 사업 등 임실군 농촌발전을 이룰 공모 선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임실군에서 민간주체와 함께 오랫동안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곳은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조건"이라며 "현 시점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방문과 사업 타당성 논리를 통해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은 최근 69개의 2020년 국가예산확보대상 중점관리사업을 확정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취업기반 마련... 순창군, 광주직업전문학교와 맞손

순창군이 지역내 청·장년층의 구직을 위해 직업전문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군은 18일 관내 미취업자 및 유망인력 취업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 희망직업전문학교와 업무 협약

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희망직업전문학교 운영중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실내건축, 도배, 인테리어필름, 타일 등 다양한 건축분야의 과정을 개발하

여 건축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주민이 원하는 직업훈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원예특작분야 17개사업 준비 38억투입

순창군이 올해 원예특작분야 농업소득사업에 저온저장고 지원 등 18개 사업에 38억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세계농업시장개방에 맞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사업을 통해 고소득 특화작목

집중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냉동고 및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중형관정 개발 등이다. 군은 장류사업 발전을 위한 고추는 공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

에 2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태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을 위해 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돈버는 농업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주민 모임인 마을계획단이 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 발전과 변화, 주민들이 앞장

남원 인월면, 산내면 마을계획단 운영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함께 마을을 바꾸어 나가는 주민 모임인 마을계획단이 남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인월면과 산내면에서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는 마을계획단 역량강화교육은 인월면과 산내면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마을계획 이해 ▲회의 기술 익히기 ▲마을의제 발굴 등의 내용을 실습형태로 총 9회

실시된다. 주민 총회를 통해 발전의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행복한 변화로 향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결정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 마을계획단 역량강화사업을 읍면동으로 확대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노암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계획단을 운영해 주민들의 호평을 얻었다. /김재훈 기자



심민 임실군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식을 가졌다.

임실군 공무원 노조 임금 단체 교섭 체결

심민 임실군수는 18일 군수실에서 임실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임실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2개 노조와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식을 가졌다.

심민 임실군수, 송덕룡 공무원노조 지부장, 이상배 자치단체노조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심민 군수는 "열악한 환경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기에 임금 단체 교섭을 원만히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덕룡 임실군 공무원 노조 지부장은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관심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공무원 노조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보건소

베이비마사지 교실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3월부터 7월까지 생후2~8개월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마사지 교실을 운영한다.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는 마사지교실은 4개월간 셋째 넷째 주 화요일(오전 10~11:30)에 운영된다.

베이비마사지는 아이의 신체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성장발달을 돕고, 림프관에 영향을 주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등 신체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피부접촉으로 성장발달과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 남원시 보건소의 베이비마사지 교실을 통해 산모와 아이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 생활개선회원

클린순창 만들기 앞장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는 18일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플라스틱과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순창읍, 인계면, 북흥면, 생치면, 구림면 등 5개 읍면의 생활개선회원 207명을 대상으로 순창군의 생활환경 전도사로 양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이론교육 3회, 현장탐방 1회 등 총 4회로 이뤄지며, 시간은 주로 영농일로 바쁜 낮 시간을 피해 저녁시간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순창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받은 구림면 임점례 회장은 "고추밭에서 무심코 태웠던 폐비닐 등이 발암물질 및 미세먼지 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이번교육을 통해 배웠다"면서 "앞으로 영농 폐기물을 잘 분리수거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일상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클린순창을 만들어가는 환경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며 "생활개선회원들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생활환경 전도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